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선언 제정위원회 준비회의

2015.3.12. 목 오전 10시  
정동프란치스코회관 211호



사진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진  
2014.8.15 / 서울 시청 / 김용구

# 목차

2015년 3월 12일(목) 오전 10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

## I. 보고안건

1.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운동 추진 경과 \_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p.4
2. 4.16참사 인권실태조사 진행 경과 \_박진 (다산인권센터) p.9
3.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초안 성안 경과 \_박은희 (예은 엄마, 4.16 가족협의회) p.11

## II. 논의안건

1.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정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구조 p.13  
\_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2.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정 추진 로드맵 p.16  
\_미류 (인권운동사랑방)

## III. 참고자료

1.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정 전문위원 명단 p.20
2. 4.16인권선언운동에 대한 제정 전문위원들의 의견과 제안 p.23

## IV. 첨부자료

제정 전문위원 참여 설문 p.29

# 보고안건



사진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진  
2014.8.15 / 서울 시청 / 김용구

# 1\_ 존엄과 안전에 관한

## 4.16인권선언운동 추진 경과

### 1. 4.16인권선언 추진대회

- 2014. 12. 10.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 2. 4.16 인권선언 초안발표

1) 당사자 및 추진그룹 간담회

2014.11.13	<b>재난가족협의회</b> <b>(씨랜드, 태안해병대캠프, 춘천인하대봉사단, 대구지하철화재참사 유가족)</b>
<p>* 간담회 주요 내용</p> <p>(진상규명)            정부의 관리감독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빚어진 사고로,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시설과 기관이 운영되어 빚어진 참사의 행태가 대부분임. 관계 공무원(지자체, 경찰, 검찰, 군인, 공무원)들은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를 꺼려하고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고 함.</p> <p>(불철저한 수사)            정부의 문제점이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사고원인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고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독립적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구가 필요함.</p> <p>(보상, 배상)            보상, 배상의 문제가 제 각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이를 활용해 유족들의 싸움을 ‘보상’ 문제로 호도함.</p> <p>(낮은 처벌과 책임자 없음)            관계 공무원은 대부분 무죄로 처벌되었고, 처벌했다고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 수준임.</p> <p>(참사 이후 겪게된 인권침해)            피해보상 금액을 놓고 유족에 대한 여론몰이를 진행하는 행태, 언론의 호도./ 유가족에 대한 정부의 감시/ 슬퍼하거나 애도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됨./ 시신수습의 권리도 박탈됨./ 생존자들에 대한 방치/</p>	

<p>(전문기관 미비) 사고 이후 정부와의 대응에서 이를 피해자 입장에서 지원해줄 시민사회단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낌.</p>	
<p>2014.11.25</p>	<p style="text-align: center;"><b>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안전대안팀 간담회</b>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사회진보연대, 공공교통네트워크, 민주노총 노안실)</p>
<p>* 간담회 주요 내용</p> <p>(진상규명) 산업재해를 입은 당사자인 노동자가 오히려 원인을 밝히고 규명해야 하는 조건. / 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현실/ 산재피해를 입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전문가가 많지 않음 / 기업주가 처벌을 제대로 받지 않는 문제</p> <p>(평등하지 못한 산재와 그 이후) 안전은 권리의 문제이자, 정치, 권력의 문제/ 돈과 고용평등성과 연결이 됨/ 배제와 차이를 넘어서는 일상 정치의 주체로</p> <p>(일하는 사람이 현장의 안전 문제에서 대상화되고 있음) 주체가 되지 못하도록 왜곡하는 현실./ 안전을 노동자 개인의 문제로 왜곡해, ‘내가 조심해’라고 강요하는 것/ 회사 일방의 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거부하면서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통제력을 갖는 운동이어야.</p> <p>(제도적 권리만으로는 권리가 현실화되지 않기에 집단적 권리의 필요) 산업재해라는 결과에 맞선 싸움이 아니라, 보호와 예방을 위한 싸움으로 진전하기 위해서는 결사를 통한 권리의 필요/ 개인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모두를 보살필 권리/ 관계 속에서의 권리</p> <p>(죽지않고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일할 권리라는 방어적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 생존권 투쟁을 넘어서 보호와 예방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강조해야/ 내가 조심하지 않아도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안전을 잃으면 당사자는 모든 것을 잃는 큰 사안인데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현실을 넘어서야./ 노동현장에서 위험을 멈추고, 회피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분명해져야</p> <p>(노동자 안전과 시민안전의 연계) 노동자 안전의 안전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음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고, 최근에는 만나고 있음. / 숫자로 표기되는 재해를 삶을 잃은 당사자의 고통과 아픔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이를 해결을 위한 과정과 계기로 구성할 수 있어야</p>	

2015.01.26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p>*간담회 주요 내용</p> <p>(선언의 위상)  '위험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제기에 공감하는 바가 큰 현실, 선언은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어떤 가치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과정과 맥이 닿아 있어서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됨.</p> <p>(추진과정)  일부주체들의 제안과 동참에 그치지 않도록, 추진과정이 범국민운동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더불어 선언의 구성내용이 일반적인 표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선언의 절실함이 확인되기 위해서는 싸움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선언이 중요하고, '미안합니다', '잊지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을 지켜나가는 과정으로</p> <p>(선언 교육자료)  인권선언의 내용이 대중적으로 쉽게 읽힐 수 있는 교육자료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단계적으로 홍보와 교육, 선전에 대한 전략을 가져야 할 것임./ 비용과 효율의 문제로 안전을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수준의 동의가 구체적인 수준에서 '좋은 말이지만, 그럼 기업의 경쟁력은?'이라는 반문과 함께 선언의 가치를 사문화하는 지배권력의 접근이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는 것을 풍부히 하는 교육자료 등이 필요함.</p> <p>(후속과정)  선언이 선포 이후 한국사회에 자리잡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조례제정 운동 등에 대한 계획도 필요할 것임.</p>	
2015.02.10	<b>노동안전보건운동단체 간담회</b>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건강한노동세상-인천, 산업보건연구회-대구,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p>*간담회 주요 내용</p> <p>(선언의 위상)  선언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출발점으로 오랜기간이 걸리겠지만, 중요한 역할을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겠음.</p> <p>(산재인정 투쟁의 과정에서 확인한 것)</p>	

안전의 권리가 ‘재난, 참사’, ‘산업재해’ 피해당사자와 유족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인권으로 제기되어야 함.

(당사자의 권리)

보통 산업재해 등의 문제가 유족과의 ‘보상’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관련 사안이 끝났다고 인식하는 관행을 넘어서야. 더욱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와 진상규명이며 이에 대한 권리가 있음./ 최근 산업재해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가 하청노동자인데,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구조가 부족함./ 당사자의 치료와 재활을 포함하여 치유받을 권리가 선언의 권리 항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추진과정)

기존 민주노총의 산재사망특별법(기업살인법) 제기과정이 현장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기획되지 못해 힘을 얻지 못했음. 선언을 추진과정에서 이를 조직하는 운동적 기획이 필요함./ 제정을 위한 전 과정에서 지역순회와 간담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함. 더불어 대중조직이 현재 이 문제에 둔감한데, 이를 강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할 것임./ 4월은 민주노총 ‘노동자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이기도 하니, 4.16 전후로 사업장의 교육, 지역별 교육위원 구성 등 관련 계획이 필요함./ 탈핵,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의 학부모모임 등 함께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할 것임.

(정부와 기업, 사회적 책임)

사고가 날때마다 규제완화가 거론되는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규제 변경이 어려운 구조를 마련해야 함./ 1993년 6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고, 특조법의 50여개 항 중 안전관련 규제완화 항목이 26개. 특조법 제정으로 안전 관련한 규제를 없애거나 수정함으로써 안전대책을 무력하게 만들었음, 특조법 폐기가 절실함./ 세월호를 경험하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안전을 부모의 몫으로 받아들이며, 어떻게 내 아이만은 안전하게 키울 수 있을까로 고민하며, 안전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개인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음. 이것이 국가와 기업,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함.

(노동자의 권리)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을 인지한 노동자가 위험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보장받는 것. 이것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되어야 함.

(교과과정의 중요성)

문화를 바꾸기 위해선 인권, 차별, 생명의 존엄 등에 대해서 정규교육과정에서 반드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함.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내용이 습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노동자와 시민 안전의 연계)

제품을 생산하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지역주민과 소비자도 안전하다는 기초적인 인식을 확산

해야 함. 시민의 건강과 따로 사고할 수 없는 문제라는 인식의 보편적 확산이 중요함.

(기타)

‘4.16선언’이라고 할때 세월호 참사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함. 세월호 참사는 이 사회의 문제가 집약적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4.16선언’에서 ‘4.16’이 강조되는 지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2) 오마이뉴스 기획연재

14.12.06 <a href="http://omn.kr/azlc">http://omn.kr/azlc</a>	[4·16 인권선언①]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세월호는 '인권침해' 사건 - 죽인 것과 죽게 내버려둔 것은 다르지 않다 (미류)
14.12.10 <a href="http://omn.kr/b0mz">http://omn.kr/b0mz</a>	[4·16 인권선언②] 시신 수습마저 포기? 짐승이 되려는 건가 - 유가족들의 인권은 짓밟혔지만 그래도 우리는 외친다 (박은희)
14.12.13 <a href="http://omn.kr/b1pk">http://omn.kr/b1pk</a>	[4·16 인권선언③] '자식 잃은' 부모에 슬퍼할 틈도 안 주는 잔인한 나라 - 참사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 그리고 독립기구 (정경원)
14.12.17 <a href="http://omn.kr/b399">http://omn.kr/b399</a>	[4·16 인권선언④] 한강에 배 띄우겠다는 청해진... 어찌다 이렇게 됐나 - 죽음마저 비용으로 따지는 기업... 안전의 권리가 필요(김혜진)
14.12.19 <a href="http://omn.kr/b43y">http://omn.kr/b43y</a>	[4·16 인권선언⑤] 발암물질을 면봉에 묻혀... '알아야 산다' - 인권선언에 우리의 권리가 포함되어야 한다 (임자운)
14.12.23 <a href="http://omn.kr/b5jj">http://omn.kr/b5jj</a>	[4·16 인권선언⑥] 세월호 농성장에 '제주산'이 많은 까닭 - 우리 권리는 함께한 이들의 경험에서 나온다 (이은정)
15.01.01 <a href="http://omn.kr/b8hl">http://omn.kr/b8hl</a>	[4.16인권선언⑦] 가족 잃은 사람이 '죄인' 되는 사회, 이제 끝냅시다 -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인권선언' 내용들 (박진)

## 2\_ 4.16참사 인권실태조사 진행경과

### 1. 목표

- 4.16참사 경험을 통해 참사와 재난에 있어 필요한 권리가 무엇이며 침해되지 말아야 할 권리들이 무엇인지 밝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4.16특별법의 지원배상관련 소위원회(3소위)의 피해자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면) 이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게 한다.
- 4.16참사 피해자들의 정신적, 재산 등의 피해가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사회화한다.(배보상 특별법에서 구제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 4.16인권선언운동의 근거가 되며, 참사와 재난이 단순히 불행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극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인권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각인한다.

### 2. 방식

- 실태조사는 4월말 발표를 목표로 한다.
- 실태조사는 희생자 집단별로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진행한다.
- 심층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며 인터뷰 자료는 목록별로 분류한다.

### 3. 조사대상

- 단원고 학생 교사 희생자 부모, 형제자매, 생존학생
  - 비단원고 희생자 유가족, 생존자(화물피해자, 이주민, 아르바이트 선원)
  - 실종자 유가족
  - 민간잠수사, 잠수사 유가족, 자원봉사자
  - 진도어민 등
- ...총 40여명 예정

### 4. 인권실태조사단 구성

#### 1)구성과 역할

- 인권활동가, 작가기록단, 자원활동가들로 인권실태조사단 구성
- 조사자들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신뢰와 비밀의 의무를 다한다.
- 조사단은 인터뷰팀과 자료조사팀으로 나뉘어 활동하며 보고서 작업을 위한 목록화 작업에는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미디어팀이 함께 작업을 하며, 영상기록을 남기고 실태조사 보고회뿐만 아니라 진상규명과 참사 지원, 추모 활동에 기여하도록 한다.

## 2)인터뷰팀

- 조사자는 2인 1조가 되어, 사진과 기록의 역할을 담당한다.
- 조사자들은 경험있는 사람 1인 이상을 배치한다.
- 조사자들은 2-3인의 피조사자를 인터뷰한다.
- 인터뷰팀이 가져야할 원칙에 대해 정리 공유한다. (예, 질문은 객관성을 가져야한다)
- 인터뷰 자료 사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 3)자료조사팀

- 인터뷰와 언론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하고 보고서 목록화 작업에 첨부하도록 한다.
-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부관계 자료 등 자료를 수집하고 취합한다.

## 4)미디어팀

- 인터뷰시 영상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뷰팀은 사전에 피조사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미디어팀이 인터뷰시 함께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 인권실태조사 보고회에서 영상기록을 작성 보고한다.
- 이후 영상기록물은 참사의 진상규명과 지원,추모 사업 등을 위해 보관하며 사용한다.
- 인터뷰 자료 사용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한다.

## 5. 일정

- 2014년 2월 11일(수) 기획팀 구성과 기획안 확정
- ~2014년 2월 16일(월) 인터뷰 내용 초안 작성
- ~3월 2일(월) 오리엔테이션 및 조사대상자 섭외
- ~3월 9일(월) 인터뷰 내용 확정 및 조사대상자 섭외완료
- ~3월 23일(월) 인터뷰 완료 및 자료 취합, 보고서 초안 작성 회의
- ~4월 6일(월) 보고서 초안(권리 목록화 작업)작성 및 보완회의
- ~4월 13일(월) 보고서 최종 원고 및 편집
- ~4월 20일(월) 또는 (늦어도) 27일 발표

### 3\_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초안 성안 경과

세월호 참사 앞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일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겠다는 것일까요? 단순히 생전의 모습을 잊지 않겠다는 말은 아닐 겁니다. 세월호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기억하고 기어 이 바꾸어내겠다는 약속일 겁니다. 참사 이후 우리가 느꼈던 무력감과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바꾸어내려는 끈질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에 의해 2014년 12월 10일 ‘4.16인권선언’이 본격적으로 제안되었고 세월호 참사 1주년에 맞추어 ‘4.16 인권선언 초안’을 만들기 위한 TFT모임을 구성하고 세 차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인권활동가들, 법전문가들, 재난피해자들, 다양한 시민활동가들 등이 모여 세월호를 통해 우리가 기억하고 행동하기 위한 첫걸음인 416인권 선언의 틀을 짜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세월호를 통해 고민하게 된 많은 것들을 되도록 분명하면서도 쉬운 말로 담기 위한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에 모인 여러분께서 1주기 416인권선언초안발표와 2주기 416인권선언발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과 공감의 담겨질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논의안건



사진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진  
2014.8.15 / 서울 시청 / 김홍구

# 1\_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정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구조

## 1. 4.16인권선언 제정위원회 구성의 취지

1)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이 아래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 각계 각지에서 실질적인 풀뿌리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하면서 인권선언문을 함께 만들어갈 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2) 4.16인권선언은 세월호 참사로부터 출발하지만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길잡이로서 우리 모두의 선언이 되어야 한다. 인권선언의 내용을 다양한 관점과 시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인권선언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다양한 사람들로 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3) 4.16인권선언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풀기 위한 또 다른 운동의 시작이다. 인권선언이 다양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색하고 촉진하기 위해 제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2. 4.16인권선언 제정위원회 구성 현황 및 계획

### 1) 제정위원회 구성 방향

○ 인권선언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304인의 제정위원회를 구성하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3단계로 나누어 1:1:1로 구성한다.

○ 1단계는 102인의 전문위원을 조직한다. 존엄과안전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들로 구성하여 인권선언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2단계는 101인의 풀뿌리 제정위원을 조직한다. 4.16약속지킴이, 지역대책위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여 인권선언의 풀뿌리 토론을 추진하고 각지에서 4.16인권선언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 3단계는 101인의 시민 제정위원을 조직한다. 4.16인권선언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지원을 받고 추천하여 선정한다. 각자의 일상에서 4.16인권선언을 검토하고 토론하고 알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제정위원회가 인권선언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활동이나 다른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기구를 안팎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즉, 제정위원회가 인권선언운동을 책임져나가 되 제정위원회만 책임지는 운동이 되지 않도록 운동을 확장하기 위한 모색을 한다.

○ 세월호 참사 이후 다양한 실천을 벌여왔던 그룹들이 구성을 추진하는 '(가)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를 통해 인권선언 제정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4.16연대와 긴밀하게 결합 하되 독자적인 운동을 만들어간다.

## 2) 제정 전문위원 조직 현황(1단계)

- 1단계 전문위원 섭외를 추진하였음.(참고자료 별첨) 4.16인권선언 제정 전문위원은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인권선언의 바탕이 되는 사건을 함께 겪은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고려하였음. 인권선언운동의 추진 단위를 비롯하여 인권운동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참사의 피해자와 가족들, 4.16참사 대응을 위해 각계에서 활동해온 사람들, 인권선언운동을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나갈 사람들 등으로 구성.
- 수락한 제정위원들로 제정위원회(준)을 구성하고 이후 제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 2) 풀뿌리 제정위원 섭외 계획(2단계)

- 세월호참사 이후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해왔던 분들 중 인권선언운동의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을 섭외한다.
- 광역시도에서 3~4명씩, 서울수도권에서는 시군구 단위까지 고려해 섭외한다.
- 3월 20일경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 3) 시민 제정위원 모집 계획(3단계)

- 4.16인권선언 제정의 필요성과 인권선언운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들로부터 제정위원 지원을 받고 추천하여 선정한다.
- 지원서에는 나이, 직업 등 분포를 살필 수 있는 기본 정보를 받는다. 무작위 추천 전에 직업 등의 분포를 배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정위원 지원을 하게 된 동기 등을 묻는 문항을 만들어 적극적인 역할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민 제정위원을 모집하는 과정이 인권선언운동의 취지를 알리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한다.
- 3.16.(월) 모집 시작하여 3.31.(화)까지 지원 마감, 이후 선정하여 제정위원회 304인 명단 확정.
- 추천되지 못하더라도 지원했던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 3.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정위원회 운영 구조

### 1) 제정위원의 권한과 의무

- 304인의 제정위원은 4.16인권선언의 최종안 토론에 참여해 최종안을 함께 만들 권한이 있으며, 인권선언운동을 펼쳐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기획, 실행하는 회의 등을 소집할 권한이 있다.
- 304인의 제정위원은 초안과 최종안에 대해 토론하는 전원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초안

발표 이후 최종안 토론에 들어가기 전까지 최소 1회의 간담회를 열어 토론을 촉진할 의무가 있다. (불가피하게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의견서 제출 등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2) 제정위원회 운영 구조

- 제정위원회는 따로 체계를 두지 않고, 두 번의 전원회의, 제정운동 전반의 추진을 책임지는 추진회의를 기본 운영구조로 한다.
- 1차 전원회의 : 제정위원 전원이 참여해 초안에 대해 토론한다. 초안 발표 이후의 풀뿌리 토론 계획 등 제정운동 추진 계획에 대해 토론한다.
- 2차 전원회의 : 제정위원 전원이 참여해 최종안에 대해 토론한다. 최종안 확정 이후 범국민적인 채택 과정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 등에 대해 토론한다.
- 추진회의 : 인권선언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추진 로드맵의 세부 사항들을 기획하며 실행계획을 논의한다. 추진회의는 모든 제정위원에게 열려 있으며 결과는 모든 제정위원들에게 보고한다.
- 제정위원은 다양한 활동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현재 초안성안회의가 구성되어 활동을 진행 중이며, 제정위원 조직, 전원회의 준비, 풀뿌리 토론 기획, 온라인 활동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를 소집하는 제정위원은 그 취지와 필요성을 모든 제정위원에게 제안하고 참여 의사가 있는 사람들과 기획실행을 추진한다.(회의 참여는 제정위원이 아닌 성원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때 소집권자는 회의가 유지되는 기간 동안 추진회의에 참석해 다양한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제정위원은 인권선언운동을 펼쳐가는 과정에서 소모임을 만들거나,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각 계 각지의 특색에 맞는 운동을 연계하여 펼쳐갈 수 있다.

## 3) 제정위원회 활동을 위한 재정

- 인권선언운동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일상적인 재정은 (가)4.16연대의 사업비로 요청하고 제정위원회가 독자적인 재정구조를 가지지 않는다.
- 인권선언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특정 사업의 경우, 해당 목적 사업의 재정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은 제정위원회가 책임진다.

## 2\_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정 추진 로드맵

### 1. 4.16인권선언 제정 추진의 기초

1) 다른 사회를 향한 힘을 모아가자. 4.16인권선언운동은 세월호 참사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다짐했던 마음을 모아 행동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이다. 인권선언의 제정 과정은 모두가 행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지평을 만드는 운동이 되도록 한다.

2) 함께 배우고 토론하자. 세월호 참사 이후 책임은 희미해지고 성찰은 시들어가고 있다. 인간의 존엄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과정이 되도록 한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의 방향을 날카롭게 베풀 수 있는 인권선언이 되도록 한다.

3) 폭넓은 참여를 이뤄내자. 인권선언운동은 인권의 관점으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빼앗기거나 놓쳐온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이다. 제정 과정에서 폭넓은 참여가 가능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우리 모두의 경험과 만나 살아있는 인권선언이 되도록 한다.

### 2. 4.16인권선언 제정 추진 로드맵

#### 1) 4.16인권선언 초안 마련

- 초안성안회의 ; 2~4월
- 1주기 전후로 초안 발표 ; 4월
- 1차 전원회의 열어 제정위원 전체 토론 ; 5월

#### 2) 4.16인권선언 풀뿌리 토론

- 전문위원 초안 토론 및 1차 풀뿌리토론 ; 6~8월
- 2차 풀뿌리토론 및 주요 쟁점 집중토론 ; 9~11월

#### 3) 4.16인권선언 최종안 성안

- 2차 전원회의 열어 제정위원 전체 최종안 토론 ; 11월말
- 최종안 발표 및 제정 계획 발표 ; 12월

#### 4) 4.16인권선언 채택

- 범국민 서명운동 등 ; 2016년 1~3월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채택 ; 2016년 4월

### 3. 4.16인권선언 제정 추진 세부 계획

#### 1) 초안 발표 및 전원회의 준비 (3~4월)

- 초안성안회의 토론을 이어가며 초안을 성안
- 4.16가족협의회 및 재난안전가족협의회와 사전 간담회 진행
- 1주기 전 초안 발표 및 제정위원회 발족 ; 4월 14일(화) 오전(가안)
- 4월말 또는 5월초 인권실태조사 결과 발표

\* 1차 전원회의 기획과 준비를 담당할 수 있는 회의를 4월 초에 구성하여 추진.

#### 2) 1차 전원회의 및 풀뿌리토론 준비 (5월)

- 초안의 내용에 대한 기초 토론을 위한 1차 전원회의 ; 5월 9일(토) 오후(가안)
- 모든 제정위원이 실질적으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10~15인으로 모둠을 구성하여 진행.
- 풀뿌리토론의 쟁점을 버리는 과정으로서 초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
- 인권선언 제정 추진 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토론도 진행.
- 1차 전원회의 결의안 채택 등을 준비하여 결과를 정리
- 4.16인권선언 제정 과정을 알리고 풀뿌리토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페이지 개설

\* 풀뿌리토론 진행 위한 기초자료로 초안 및 토론제안내용이 담긴 자료집(소책자)을 제작

\* 풀뿌리토론 촉진 및 내실화를 위해 기초프로그램 준비

\* 토론된 의견들이 체계적으로 취합되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 양식 마련

#### 3) 전문위원 초안 토론 및 1차 풀뿌리 토론 (6~8월)

- 인권선언 전문 제정위원들은 각 영역/주제에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간담회를 조직
- 풀뿌리, 시민 제정위원들은 지역과 일터에서 초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간담회를 조직
- 인권선언의 내용을 잘 알리기 위해 주요 도시 설명회, 강연회, 토론회 등 추진 검토
- 제정위원이 아니더라도 풀뿌리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 제공하고 의견 반영
- 오프라인 토론 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페이지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함

#### 4) 2차 풀뿌리 토론 및 각종 기획사업 (9~11월)

- 1차 풀뿌리 토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식의 콘텐츠 개발
- 온라인 풀뿌리 토론 추진

- 1차 풀뿌리 토론에서 나온 주요 쟁점에 대한 심화토론, 국제사회 논의와의 교류,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토론 등을 추진하여 풀뿌리 토론을 활성화. 인권선언 관련 각종 소모임도 만들 수 있음.
- 풀뿌리 토론 외 다양한 방식의 시민 참여 기획 추진.

#### 5) 2차 전원회의와 그 후

- 풀뿌리토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채택하기 위한 2차 전원회의
- 최종안 발표(12.10. 전후) 이후 제정운동의 세부 계획에 대한 토론
- 인권선언과 연계하여 독자적인 선언이나 법, 조례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2차 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4월 채택 추진.

# 참고자료



사진 세월호를 기억하는 사진  
2014.8.15 / 서울 시청 / 김용구

# 1\_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정 전문위원 명단

이름	소개	4.16인권선언은 ...이다!
강문대	민변 노동위원회	칼(416 전후를 가르므로)
강용주	광주트라우마센터	삶과 기억
고석	재난안전가족협의회	안전바로세우기
곽이경	동성애자인권연대	존엄한 인간의 실천
권영은	반올림	제자리로 돌아가는 걸음
김광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생명권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우리 모두의 책무이며 권리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흔들림 없는 우리의 약속
김민수	청년유니온	마지노선
김병훈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사람
김성균	서울대학교	인본주의의 수호
김성욱	4.16가족협의회 희생교사 부모	.
김연지	엄마의 노란손수건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잘못된 사회를 향한 일침이다.
김용휘	천도교한울연대	생명살림
김이종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겠다는 마음과 행동
김일란	연분홍치마	평화로운 삶
김정해	세월호416대외협력광화문팀장	국민력
김창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국장	.
김하은	동화작가	평화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마중물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춧돌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세월호 천개의바람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
난다	인권교육 온다, 청소년인권활동가	희미해지는 시간들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기 위한 한 걸음
날맹	인권교육센터'들'	"안전의 재구성!"
노순택	사진사	더 이상 침몰하지 않겠다는, 거부의 선언
도철	조계종노동위원회	지장보살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성찰로 그리는 미래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죽은자와 산자의 대화
마이금	안산시민대책위공동대표	미래의 에너지
문경란	서울시인권위원회	등대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움직이자는 약속
박동호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	.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	시민헌장
박병우	민주노총	세월호 진상규명의 초석
박영일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인간존엄
박은희	세월호희생자가족	나 자신이 주인임을 알리는것
박종범	세월호유가족	국민 권리 찾기, 인간존엄성 회복!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생명선
박준도	사회진보연대	안전에 대한 시민의 권리장전
박진	다산인권센터	다른사회를 위한 약속
박진우	이주노동조합	기억
박혜영	노동건강연대	주춧돌
방귀삼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유가족	
배서영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회복의 시작
배영란	광화문 티비 자원봉사자	안전사회의 시작
변연식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눈물
손진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안녕한 삶을 만드는 것
송주명	민회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새 대한민국 선언
신주옥	사무소LPW	필수적
심보선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우리가 외면해온 질문들의 총합
안보영	시네마달	최소한의보루,살기위한
양승미	광화문 노란리본공작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와 탈핵활동가	내마음
양한웅	조계종노동위원회	관세음보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의무
오세범	대한변협세월호특위	나침반
오세진	서울신문	사랑. (인간애에서 비롯된 것이 인권이라는 믿음에서 4.16인권선언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유성애	오마이뉴스	아이들의 유언
윤대기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윤용배	한국진보연대	구명조끼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정표
이가원	유엔인권정책센터	생명
이동슈	현장시사만화가	살기위한최소한의 행동
이보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당연한 권리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출발점
이영옥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메아리
이영주	민주노총	샘물
이용석	부천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랑'	생존 선언
이원재	문화연대	행동하는 기억
이재승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분기점
이종걸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우리가살아가는세상이부끄럽지않도록함께하자는소중한약속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억투쟁
이현주	(사)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치유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에 있어요	주권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선언
임종호	세월호 유가족	사람중심세상
장동원	416가족협의회 생존학생학부모 대표	인간의 존엄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세월호참사 이전과 달라지기 위한 출발
장옥주	세월호문제해결을위한안산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우리의 생명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안전사회 만들기의 초석
전재영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 사무국장	참사 유족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하는 선언
정경원	춘천봉사활동인대희생자기념사업회	미래희망
정영미	전교조 416특별위원회	투쟁
정은주	한국인권재단	새롭게 써야할 역사
정정훈	수유너머N	희망의 준비
정현곤	사단법인 시민	시작점
정혜숙	세월호 유가족	공동선
조경옥	공공교통네트워크	도약을 위한 시작
지민주	노동가수 인권	사랑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416 이전의 사회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외침
최명선	민주노총	생존권
최세진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	생명선언
최완옥	광주인권운동센터	땅의 함성
최재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탈시설
최종진	민주노총	국민의 의무
최준석	전공노 인권위지부장	영원함
최현모	인권재단사람	함께삶
하승우	땡땡책협동조합, 풀뿌리민주주의와 자치	자기결정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생명
한석호	민주노총	사회연대
한인임	일과건강	행복시작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이땅에서 안전하게 살기위한 기본 권리
현재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사무국장	알권리
혜원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모두의 마음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인권법	마중물

# 2\_4.16 인권선언 운동 등에 대한 제정 전문위원들의 의견과 제안

## 4.16인권선언의 방향

1)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선언

: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언어, 추상적이다 않고 구체적인 언어, 해석의 여지가 너무 넓지 않은 언어, 그렇게 만들어지기를요.

: 제정 과정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쉽고 단순한 언어로 작성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 노래가사처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따라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초등학교 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선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직 고민이 부족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채워나가야겠지만 일단 떠오르는 건 선언이 "전문가"들의 어려운 혹은 공허한 언어로 작성되지 않도록 고민하는 것 / 다른 운동(예컨대 평화운동)과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은 없을까 스스로에게 과제로 가져가고 싶네용

: 보통사람, 인권에 대해 잘 모르는 우리 엄마가 봐도 공감이 되는 선언이 되면 좋겠습니다.

: 왜 인권선언인지를 확실히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2) 실천이 담보되는 선언

: 실천이 담보되길요.

3) 모두가 존중하고 모두를 존중하는 선언

: 국민전체의 안전을 아우르는 이슈

: 모두의 선언으로!!!

: 모두가 존중될 수 있도록 애써주세요.

## 4.16인권선언의 구성

: 전반부

좋은 사회에 대한 열망과 신자유주의를 폐기하는 것

인간다운 삶과 존엄에 대한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

후반부

세월호 관련 권리들을 제시

'피해자권리장전(반보벤\_바시오우니 과거청산 원칙)'을 참조하시는 것도 좋겠음.

: 참사 발생 전/참사 발생/발생 후로 나뉘 권리목록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4.16인권선언에 담겨 있어야 할 가치, 내용

- : 치유와 회복까지 책임지는 안전
- : 기업살인죄 제정 요구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 시민의 권리로서, 노동자의 권리로서 안전
- : 기업의 사업, 국가의 사업 등을 수행함에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없애야 합니다.
- : 기업과 자본의 탐욕 중단에 대한 명시적인 요구
- : 사회 전반의 안전보건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언이 되어야 한다. 시민뿐만이 아닌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권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한다.
- : 생명과 안전가치의 중요성
  - 배려와 평등의 권리
  - 자기할일의 책임성강조
  - 미래세대의 희망부여
- : 헌법에 명시된 인권의 기본 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 속에 시대의 징표로 명확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참혹한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첫 걸음이 4.16 인권선원이어야 합니다.
- : 존중받을 권리에 기반한 합의의 정신
- : 용산참사와 같은 비극도 함께 고려되었으면 합니다.
- : 사람 사람 사람
- : 인간존엄에 대한 국가의 태도 근본전환.
- : 안전을 추구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권리 혹은 누군가의 권리는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누군가 지켜주는 안전이 아닌 우리가 만들어가는 안전은 어떻게 가능할까
- : 1.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애써야 한다.
  - 2.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 : 누구나 생명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자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사회를 넘어서려면 생명의 존엄과 안전에 대해 교육하고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익혀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안전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윤보다 생명이라는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 : 인권선언의 주체가 모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누구나'라는 말은 정작 누군가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 치유와 회복
- : 물질만능과 성과주의, 성장주의에 가려진 사회정의와 인간존중에 대한 가치를 일깨운 내용이어야 한다.
  - 어떤 사유도 인명의 안전과 인간존엄성에 우선할 수 없다.
  - 금전만능(경제)과 효율, 성과(성장), 권력과 관행을 앞세워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용납될 수 없다.
  - 국가권력이 경제논리와 정파적 이해 또는 관행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하면 그 권력의 정당성은 소멸된다.
  - 모든 사회 성원은 생명과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수호하기 위해 연대해야 한다.

등등 우리사회에 만연한 경제논리, 진영논리로부터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프레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가치로 채워졌으면 합니다.

: 신자유주의 성찰 새 대한민국 구상

: 성찰

: 국민의 인권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세월호 진상규명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강조

: 국가의 책임성 강화, 시장(자본)의 횡포로부터의 자유

: 명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엄벌이 사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한다는 점을 담아야 합니다.

: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 보장 요구.

-어린이 현장, 청소년 현장에 제시된 기본권 보장 요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복지 요구

-그 본보기는 세월호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세월호 인양이라는 것을 천명

: 성별 나이 학력 직업 재산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 국민 모두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대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강자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또한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고 다함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국가를 원한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무엇을 위한 안전인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시장에서 해결되는 안전을 벗어나 이윤보다 인간을 생각하는 안전, 존엄과 인권을 함께 보장하는 안전이야말로 세월호 참사 이전과 달라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 모든 이들이 읽고 나의 권리로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겼으면 합니다. 그냥 종이 조각이 아니라 다시는 그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져도 슬퍼할 시간조차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가능하도록. ^^

: 현대사회 '안전'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것이므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부여해야한다.

: 안전은 국가권력의 서비스를 기대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사는 지역공동체와 일터에서 위험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주민자치적 안전사회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 우리사회의 각종 참사 발생 시 피해자나 그 가족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불가변적 안전장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내용

: 치유 과정에서 필요한 일들 공유

: 고통에 공감하고, 인권이 가치를 실천하고, 이를 알리려는 마음이 담겼으면 합니다.

: 인권의 중요성을 꼭 강조해 주세요

: 안전하고 사람다운 교육을 받는 것이 중점적으로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존의 입시학벌위주의 교육에 벗어나서 사람들의 생명과 존엄성이 중요시되어야 하고 기본적인 역사와 윤리 교육이 탁상식이 아닌 실천적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생명의 '안전'과 '구조'에 있어서의 국가 무한책임 의무화! 특히 아동, 청소년 관련 안전지킴과 구조는 범국가적 제 1책무로 명기, 이를 어기거나 방기하거나 제대로 수행치 못하거나 아 니하였을 땐 가중처벌토록!

: 참사 안에서도 존엄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돈 중심에서 사람중심으로. 생명존중 안전사회건설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다.

: 구체적인 현실로 옮길 수 있는 내용, 일상에서 토론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를. 사회를 새롭게 해석하고 바꾸기 위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계획들이 제정 과정에 채워지기를~

- : 어떤 상황 에서도 사람의 인권 목숨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 : 참사의 원인규명, 책임자 처벌. 무엇보다 세월호 인양을 통한 사회적 책임 촉구.
- : 우리 사회의 지향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재구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 : 공론장의 필요성, 항상 말하는 사람들 말고 침묵하는 사람들의 말을 끄집어내는 공론장
- 역사적 참사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폭력과 배제에 대한 성찰
- 한국적 차원이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의 문제제기
- 선부른 희망과 낙관을 담지 말 것
- : 사회의 지속가능성
- : 진실, 기억, 추모, 안전

#### 4.16인권선언에 담겨 있어야 할 구체적 권리

##### 1) 안전할 권리

- :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요구할 권리!

##### 2) 유가족의 권리

- : 참사 유족으로 당연히 주장해야할 권리(사고 후 제대로 된 수습의 권리)

###### 1, 시신 수습의 권리

###### 2. 가족을 잃어 슬퍼하고 트라우마를 치료 받을 권리

###### 3. 사고 원인을 명확히 알고 처벌을 주장할 권리

###### 4. 적절한 배, 보상을 받을 권리

- 5. 안타깝지만 참사를 당한 유족으로서 또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권리와 의무 등(하지만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참사중 위 사항이 하나라도 지켜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 : 실질책임자에게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 및 사고 후 조사에 유족이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기본권 포괄

- :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는 다 정리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4) 연대권

- : 제3세대 인권이라고 불리는 연대권과 관련된 강조점이 있었으면 합니다.

##### 5) 기타

- : -불의에 맞서 저항하고 행동할 권리, 이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할, 쟁취해야할 구체적 권리들
- 혐오발언과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존엄을 지킬 권리. 세월호에 대한 혐오 폭력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사람들, 소수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에 맞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 -위험을 알 권리와 멈출 권리

###### -진실규명과 대책에서 피해자 중심적 접근

- 무한이윤추구/국가경쟁력/국가안보에서 행복/안전/지속가능성 중심으로 사회와 국가의 우선 순위를 재구성

## 4.16인권선언 제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 1) 유가족과의 연계

: 세월호 가족 대책위와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피해자와 유가족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2) 많은 사람들과의 소통, 공감

: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와 권리를 깨닫게 하는 선언이었으면 합니다.

: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선언이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되려면 잘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자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 공통점을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당위적인 내용들을 모은 덩어리보다 구체적인 삶의 곁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 뇌의 작용까지 바꿀 수 있는 혁명입니다. 사람의 생각,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더 고민하겠습니다.

: 더 많은 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자릴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 선언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제정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으면

: 널리 퍼질 수 있게 해 주세요.

: 시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고 공감하여 "우리의 인권선언"이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 -수직적 관료 문화를 청산하고 수평적 관계 형성을 위한 시스템이 밑바탕 되어야 함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이용자) 그룹이 참여하는 시스템 도입

: 폭넓게 회자되고, 공유되고, 논의되어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으고 인권선언 제정과정에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활동들 속에서 잘 버무려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 3) 인권감수성의 확대와 인권교육의 과정

: 인권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전환방향에 관한 토론이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제정과정 그 자체가 시민인권교육과정이었길 바랍니다.

### 4) 공감과 참여의 실질적 기회 마련

: 돈 없어도 함께 살아가는 사회. 돈 없어도 함께하는 인권선언

### 5) 실천과 변화의 과정

: 기존의 형식화된, 관성화된 "선언" 행사들과는 차별화된, 조금 더 본질적이고 일상적인 실천을 모색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의 "선언"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제정 과정이 운동 과정이 되도록~

: 4.16 인권선언을 준비해 가는 과정은 나 자신과 사회 국가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 될 듯 싶습니다. 또 그래야 할 듯 싶습니다.

5) 기타

: 상징성을 가진, 뜻 깊은 의미를 가진 숫자만큼 4.16 인권선언 제정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4.16 인권선언을 구성하는 내용의 질을 높이는 일입니다.

또, 4.16 인권선언에 '일반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도록, 저희 인권선언 제정위원들이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특정 연령대의 특정 계층, 특정 이념의 사람들만 준비하는 것이 아닌, '보통 국민'들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권선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인권선언 내용의 '초안'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좋을 듯

: -제정위원들의 대표성 확보

-제정 과정과 내용에 대한 홍보와 공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우리 모두의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토론방식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 -자칭 '인권선언'으로만 그칠 수 있습니다. 일상 실천사항을 넣는 등 가능하면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여기에만 함몰되지 않고, 일반인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았으면 합니다.

-인권선언에 참여하는 이들이 본인의 이해관계만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인권선언이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거나 충돌하더라도 공통의 목표 아래서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길 바랍니다.

: 복지국가'라는 공동의 목표. 필연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구현되는 시발점으로 4.16.인권선언이 기획되고 진행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자본과 속도의 홍수에서 복지철학을 논하는 매력적인 자리로 함께 만들어봐요.

: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활동

인권 탄압의 사례 및 대응안

알림활동의 계획

: 선언의 내용도 당연히 잘 준비되어야겠지만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 선언을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국민들이 공유하고, 선언의 내용에 동의하도록 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행동에 동참할 수 있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언이 선언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안, 인권선언 자체가 운동이 될 수 있는 방안, 특별법과의 연계성 등을 섬세하게 기획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첨부자료\_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정위원 참여 설문

1. 이름/활동명
2. 휴대폰 번호/이메일
3. 4.16인권선언 제정위원이신가요? 예 / 아니오
4. 아직 제정위원이 아니시라면, 함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예 / 아니오
5. 4.16인권선언 추진 경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매우 잘 안다 / 잘 아는 편이다 / 보통이다 / 잘 모른다 / 전혀 모른다
6. 4.16인권선언 제정과정에서 함께하고픈 역할은 무엇인가요? ①풀뿌리 토론 기획 ②온라인 행동 기획 ③교육자료 마련 ④선언운동의 다양한 참여 방식 기획 ⑤304인 제정위원 전원회의 기획 ⑥그 외 (적어주세요 : )
7. 본인이 속해있는 혹은 연결할 수 있는 간담회는 어떤 자리일까요? 어떤 단체 혹은 개인,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예, 청소년모임, 치유전문가 간담회 등)
8. 1회 이상, 풀뿌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실 수 있으시죠? ^^
7. 하고 싶은 말 혹은 제안하고 싶은 것들 편하게 적어주세요~